

간단 정리

- 진보정당 간 새롭게 다른 점을 찾게 되어 좋았다. 당 내에 의견그룹이 생겨 생각해볼 지점이 늘었다. 양당의 스태정치인 중심이 되어 양당심판론은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는 선거였다. 이번 선거에서 용혜인에 대한 호감도와 조국혁신당에 대한 호감도를 확인할 수 있었고 국민들의 정의당에 대한 반감이 매우 컸다는 것을 알았다. 작년 합당 제안부터 시작해 선거연합정당까지 하게 된 건 이러한 정의당 내 위기의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3차 현수막 문구는 정말 많이 아쉬웠다(위성정당, 진짜정당 관련)
- '진보를 지켜라'라는 외화된 문구들이 자기자신을 대변하는 문구라 아쉽고 객관적인 시선에서 보았을 때 조금하고 절박하게 보였다. 이효성 강원 지역 비례후보가 선거에서 보여준 모습이 인상적이다. 잘 보이지 않았던 주체와 현안들이 후보를 통해 발화될 수 있었다. 다만 연대활동에서 그쳤다는 것이 아쉽다. 중앙차원에서는 강령과 반대되는 시장주의적 입장이 수용되며 대표 공약으로 비춰지게 되면서 그전까지의 녹색당의 입장과는 달라졌다. 그런 모습들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녹색당 총대위, 전국위의 인력이 넘어가며 당대당 견제가 불가능해졌다. 다음 선거부터는 당 내 기구가 견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행해야 한다.
- 1~2석 정도로는 실현하기 어려운 공약들이 많았다. 실현가능하지 않은 공약이 아닌 더 정직한 언어로 이야기 했어야 한다. 선거연합 과정 중 발견된 차이점, 합의점을 토론을 통해 기후정치 의 틀 안에서 탐구하고 정리하고 노선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 녹색당 내에서 선거에 반대하는 입장이 분명 있지만 개인적으로 선거는 꼭 치뤄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번 선거로 언론에 많이 비춰져서 좋다. 사람들은 생태주의, 페미니즘 같은 의제에서 중요도를 나눈다. 무엇이 중요도를 결정하는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필요하다. 춘천 녹색정의당 득표율이 강원 평균보다 높다. 그래도 당 활동이 꾸준히 지속되어왔던 곳은 달랐다. 당 활동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결과가 좋지 않았기에 이번엔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다. 다음부터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겠다.
- 이번 선거가 녹색당이 원내진입 할 수 있는 최선의 시나리오였다. 이번 선거에서 얻은 것은 녹색당의 원내정당 체험이다. 이렇게 여러 언론에 비춰지는 것이 거의 처음이다. 잃은 것은 우리가 실패함에 따라 앞으로의 선거연합정당 추진 과정에서 이번 녹색정의당의 사례가 꼬리표처럼 붙어다닐 것이다. 근본적으로 한국의 다당제가 뿌리내려야 녹색당의 원내진입이 가능성 있겠다. 정의당 강령이 우리와 멀지 않다고 느꼈으나 차이점이 분명 있었다. 의사결정 방식과 정당 문화적 차이가 컸다.

- 당 내 의견그룹이 원내진입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안된다라는 의견이었다. 선거연합정당의 강령을 토론을 통해 만들어내고 당원에게 이야기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했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이번 선거가 다음 연합정당을 구성할 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음 선거연합정당을 구성할 땐 연합체들끼리 더 평등한 과정을 밟을 수 있을 것이다. 진보정당의 사명이 있기에 너무 낙관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냉철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앞으로 녹색당이 지역에서부터 찬찬히 초석을 다지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자리매김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선 준비를 잘 해야겠다.
- 이론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국민들에게 우리의 노력이 제대로 보여지지 않는다. 그동안의 사건, 이슈로 보여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세세한 무언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 것으로 국민들에게 선명히 인식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 제안하자면, 사회주의를 급진적으로 주장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후위기를 해결할 방법은 사회주의적 방법 밖에 없다.
- 일상 중 녹색당 알리기 같은 기본적인 것을 시작해야 한다. 활동과 행사가 필요하다. 다음 선거는 다른 사람들이 녹색당이라는 선택지를 가지고 투표장에 가야한다.
- 녹색당의 서사, 대중들의 관심을 이끌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만의 언어가 아닌 대중들에게도 와닿는 언어가 필요하다.
- 정치 지형 상황 자체가 틀을 바꾸지 않는다면 소수정당에게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신자유주의적 사고 방식이 경제 뿐만 아니라 정치에도 스며들었다. 분명한 전선을 마련하지 않으면 힘들 듯 싶다. 이번 선거에선 '이대론 못 살겠다'라는 마음을 조직해내지 못했다. 당원들간의 간극이 매우 크다. 교육과 학습, 토론이 필요하다. 강원도에서라도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
- 이번 선거에서 너무 깊은 반성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다. 현 정치 판세는 너무 악순환 구조이다.
- 개인적으로 이번 선거에서는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다. 이런 모습이 일반 대중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조국혁신장이 선명한 메시지를 내며 이미지 각인을 잘 시켜주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만의 언어로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급진적인 이야기를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말 모르겠다.
- 우리가 왜 싸울까, 분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생각이 많아서라고 생각한다.
- 앞으로 진보정당들이 다시 혁명을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시민들이 진보정당에게 원하는 건 뭘까. '떡갈나무 혁명'. 강원녹색당 정책위가 꾸려진다면 혁명에 대한 깊은 논의를 나누고 싶다. 기존의 선거방식과는 다른 선거를 해야한다. 진보정당과 타정당의 선거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 문화예술적으로 선거를 치루고 싶다.

- 회의록

참여자A

진보 정당의 흐름이나 각 정당이 추구했던 정책적 차이를 좀 면밀히 살펴보면 정말 여러 가지 의견을 나오는 것을 보고 조금 더 생각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의견 그룹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당 안에서 활동을 한 경험이 지금까지 있었나 싶었고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였어요. 그만큼 또 당 활동 안에서 또 애정 있는 분들이 또 이렇게 의견들을 모아서 이렇게 의견을 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했지만 그런 의견 그룹들이 당내에 생겨서 여러 의견들을 나누고 또 생각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는 그런 과정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뉴스에서 양당 중심으로, 또 되게 인기 있는 사람 중심으로 뉴스가 많이 나와서 양당 심판론보단 정권심판론이 지지받았잖아요. 원래 제가 녹색당을 지지해 달라고 하면은 지인들은 거의 녹색당을 찍어줬었거든요. 웬만하면 비례는 녹색당을 찍어줬었는데 뭔가 정의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인지 이번엔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직장에 있는 멤버들 중에서는 일단 용해인에 대한 호감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우리도 용해인만큼 잘할 후보들 진짜 많은데 관심 가져주세요.' 이렇게 대화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에게 원래 왔었을 수도 있는 표가 이번에는 조국 혁신당한테 많이 갔구나라고 좀 생각 정리를 하게 됐고, 우리가 이번에 연합 정당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정의당이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했기 때문인데 예전에는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한 적이 없던걸로 알아요. 이번에는 본인들도 알았나 봐요. 우리가 이제 저물어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정의당이 저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한편으로는 되게 같이 되게 위기감이 느껴졌고, 되게 안타까웠고, 마음이 되게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당 당원들이나 지역에서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 지금 마음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강원녹색당 안에서도 비례 선거 운동밖에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열심히 활동해 주셨고, 현수막도 되게 눈에 엄청 잘 띄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선에서 되게 최선을 다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뭔가를 많이 못 도와드린 게 좀 많이 아쉽기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현수막 문구 선정은 좀 아쉬웠습니다. 대중의 관심사가 아닌 문구였어요.

참여자B

(녹색정의당이) 마지막 일주일에 되게 이제 급박했잖아요. 그래서 막 큰절도 하고 그때 나온 메시지들이 '진보를 지켜라'라고 하는 메시지인데 사실 그건 진보 정당으로서의 결의이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게 외화될 때는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 유권자의 목소리를

담아서 저 정당이 우리를 위해서 필요하고 왜 이제 있어야 되는지 왜 내 한 표를 줘야 되는지를 이제 설득을 해내야 되는데 그 메시지는 너무 자기를 대변하는 목소리 같았어요. 선거 전략에 있어서의 조금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조급했었고 절박했었어요.

강원 지역에서는 새로운 발견을 했어요. 이호성 비례후보가 선거 운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나름 팬이 되었어요. 계속 투쟁 현안이 있는 곳을 이제 찾아다녔잖아요. 선거라고 하는 공간이 사실은 그동안 잘 보이지 않았던 사건, 주체, 사안 등을 후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데 후보의 일정이 그걸 되게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좀 아쉬운 거는 그게 연대 활동이라고 하는 범위에서만 진행이 되었다는 점이고 이후엔 녹색당, 정의당도 재건하는 과정에서는 그 네트워크를 계속 좀 충분히 살려서 가면 좋겠고 그게 진보 정당의 지역 지지 기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번 선거에서 강원지역의 모습은 이제 비례나 다른 지역구하고도 좀 차별되는 지점으로 보였고 강원에서 왜 이제 이 녹색당 필요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거 운동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앙 차원에서 유감스럽고 비판적으로 보았던 것은 녹색당이 정치대회에서 수립했던 정책 방향들이 계속 선거 과정 중에서 후퇴했던 지점들이 있거든요. 탄소세, RE100, ESG 같이 지금까지는 거부해 왔던 시장주의적인 정책과 입장들이 그냥 갑작스럽게 수용이 됐어요. 조천호 박사 등의 외부 인사들의 인터뷰 등을 통해서 그게 녹색정의당의 대표 공약이 되고 기후 공약 1번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언론들이 대서특필을 했어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녹색당의 기구가 견제하거나 조율하거나 하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녹색당 내에서의 중심이 되는 기구가 부재했다-라고 하는 점들이 많이 저는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연합을 할 때 당내의 어떤 중심이 되는 기구와 구조 등을 남겨야 한다. 그래야지 이견이 발생했을 때도 녹색당의 입장을 조율하면서 양보를 할 수도 있고, 당원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현가능하지 않은 공약이 아니라 더 정직한 언어로 표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녹색정의당의 공약은 1~2석 가지고는 실현하기 어려운 공약이었어요.

앞으로 진보 정당 연대 연합을 해나가려고 한다면 선거 기간 중에 이제 나타났던 정책적 차이를 사소하게 생각하지 않고 토론회라든지 각자 당으로 돌아가면 끝이 아니라 큰 틀에서 좀 준비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치열하게 토론도 하고 논쟁할 것이 있으면 논쟁하면서 탐구하고 깊이 기후 정의 또는 지화 진보 정당의 노선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여자C

계속 선거 자체에 참여하지 말자는 내부 의견이 늘 존재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선거는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또 정의당과의 선거연합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도 또 반대 의견도 많이 있었지만 이게 맞다, 아니다-라고 판단은 지금 못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언론에 너무 많이 비춰져서 매일매일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기분이 너무 좋았고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인식하게 되지 않았을까, 녹색당이라는 정당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게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의당과의 교집합, 차이가 둘 다 존재하는데 저는 녹색당 내에서도 존재하는데 하물며 다른 정당과 차이가 없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태주의, 페미니즘. 이것들이 번호를 매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사람들이 좀 아직까지는 개인적인 성향이나 가치관 같은 것들로 그 중요도를 매기고 싶어하는 것 같단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지역별 득표율을 보면 그건 민주당 지지도도 거의 유사하게 보여지는데 결과적으로 춘천의 득표율이 강원 전체보단 높은 걸 봤을 때 평소에 조금이라도 더 활동을 하는 것이 목표에 도움이 된다. 물론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의석을 차지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겠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도 당 활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연합을 해서도 2%가 겨우 넘긴 했는데 사실 이게 저희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막연하게 좀 기대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선거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나 혼자 생각하지 말고 내부, 외부의 이야기 많이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좀 철저하게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여자D

저는 얻은 게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원내 정당 체험이랄까요? 저희가 이 체험을 언제 또 할까 싶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선거연합정당이 녹색당이 원내 진입할 가능성이 제일 큰 성과가 아니었나 싶어요. 지난 번 선거 때 0.2%였거든요. 이번 선거 망했다고 하지만 10배 차이 납니다. 그리고 대우가 달라요. 일단 기자회견 저희가 열면 진짜 한 명 올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한 명도 안 와서 SNS로 녹화하고 게시하고 막 그랬던 때도 있는데 이번에 같이 할 땐 수많은 기자분들이 오시고 실제로 보도가 되고. 그리고 이제 시청이나 도청, 경찰에서 먼저 전화를 해서 일정을 물어봐요.

이제 좀 잃은 것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결과가 좋았으면 그것만으로도 참 많은 게 넘어가시잖아요.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거. 그 자체가 저는 되게 큰 손실인 것 같아요. 이제 한 번 선거연합 정당이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선거연합정당을 한다, 만다 이 얘기가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때 항상 꼬리표처럼 이번 실패 사례가 따라다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진보 정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잘 모르겠어요.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지 않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다당제가 뿌리 내려야 녹색당이 진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기간까지 지금의 이 선거연합 정당 실패 사례가 과연 어떻게 비춰질까 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밀접하게 정의당과 같이 활동을 했을 때 사실 저는 우리랑 많이 가깝고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정당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막상 같이 이렇게 해보니까 다른 점이 있어요. 이 차이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다시 선거 영역 정당을 구성을 하더라도 결국엔 이런 차이점들을 극복해 나가야 성공할 수 있을 테니까. 이 점은 조금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은 의사결정 방식이 되게 달라요.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중앙에서 지역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하고 막 지시 내리고 이런 구조예요. 그리고 점심식사 자리가 고깃집 이라는 등 정당 문화적 차이가 생각보다 컸어요. 여러 가지로 평등 문화라든지, 당에서 체내된 그런 어떤 문화적 차이가 있다. 이게 만약에 앞으로 선거연합정당을 또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 극복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참여자B

의견 드리고 싶은데요. 득표율이 10배가 넘었다 하셨는데 사실 이걸 녹색당, 정의당 합친 거잖아요. 21대 정의당 득표율이 9.7%였어요.

그리고 선거를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너무 빠른 시간 내에 전략을 급조하고, 원내 진출을 목표로 둔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불거졌잖아요. 당내 민주주의라든지, 당원들과의 충분한 의사소통이라든지, 당내 이견에 대한 토론과 합의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계속 생략되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거 이후의 과정에도 그게 문제가 그대로 노출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녹색당 정책위원장이 제안했던 것처럼 당들이 연합의 어떤 강령을 만들어내고 그게 각 당들의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같이 선거를 치르는 그런 방식이었으면 훨씬 좋았을 거라 생각해요. 합의할 수 없는 지점들은 더 논의하거나 아예 뺄 수도 있고요. 선거 연합은 절대 안 돼 선거 나가지 말자 이런 주장은 아니에요. 이번 평가를 통해서 다음번 선거는 이렇게 치르자 말자- 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번 실패가 다음 선거연합을 진행할 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쨌든 정의당이 원내 정당이니깐 그 이점을 살리려고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하는 바람에 사실 흡수된 형태로 뒀잖아요. 이제 주요 3당(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이 원외가 되는 바람에 만약에 다음에 연합을 추진한다고 하면 훨씬 더 평등한 관계 연합이 외적 조건에 의해서 강제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번의 경험을 좀 타산지석으로 삼고 반면교사 삼아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덧붙이면 그동안 선거운동 하느라고 일정 속에서 못했던 마음들을 계속 나누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해나가려고 노력할 텐데, 그러면서도 선거에 대한 평가는 조금 냉철하고 엄중하게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진보 정당의 어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지금과 같이 또 이제 위기의 시대에 그냥 넘어가서는 또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투박하게 단칼에 이렇게 딱 끝내지 말고. 어쨌든 좀 다독거림으로써만 딱 봉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은 어루만지되 또 평가해야 될 것들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또 해서 다음에는 동일한 오류를 좀 되풀이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참여자E

원내 한 석을 가져가기 위한 필요성이나, 아니면 정체성을 지켜나가면서 선거를 치를 것이냐. 여전히 현실과 이상에 있어서 그런 갭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좀 있어요. 우선 뭔가를 구현하려면 원내 1석을 얻는 게 우선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평가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또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참 무엇보다 큰 고민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앞으로 녹색당이 지역에서부터 찬찬히 초석을 다지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중앙에서도 노력은 많이 하겠지만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개념부터 시작해서 지역에서부터 일단은 좀 자리매김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2년을 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또 이번에 녹색 정의당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에도 많이 이제 드러나서 존재감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지역에서의 자리매김이 또 한편으로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대외적으로 이제 녹색당을 알려나가는 데 있어서도 그 노력을 전개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참여자F

사람들한테 이론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지만 선거에서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선거를 보면서 느꼈던 건 우리만 이렇게 막 진지하게 정책을 따지고, 고민하고,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국민들에게는 그런 게 보여지지 않는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조국혁신당이 확 뜨는 과정들을 보니까 그것을 일궈내는 데는 나름대로의 그동안의 과정이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도 중요한 건 하지만 정말 사람들에게 남는 건 그동안의 어떤 사건 등등 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세세하게 분석하고 따지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조차도 들 만큼.(물론 이제 구체적인 일상적인 활동에서 그런 것들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잘 모르긴 하겠어요. 그냥 추상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정해서 그걸로 더 열심을 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자 이런 얘기들을 할 수는 있지만 정작 그게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추가적으로 우리가 사회주의를 아주 노골적으로, 급진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당이 내세울 수 있는 차이점은 저는 사회주의라고 생각해요. 알잖아요. 사회주의 아니면 아무런 해결 방법이 없는 거. 사실 국민들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거, 기후 불평등

해결하는 거, 사회주의 아님 사회주의적인 방식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우리들에게 명분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참여자G

‘일상 중에 녹색당 알리기’같이 원래 했던 일들이지만 기본적인 것부터 좀 우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녹색당이 뭐 하는 당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엄청 많고요. 그리고 언론에서는 전혀 다루지도 않는데 저희가 모여서 일상 중에 이렇게 행사를 진행한다면 다양한 활동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좀 고민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다음 선거 때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녹색당에 대해서도 많이 아는 상태이지 않을까. 그래서 선택권을 좀 더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자A

우리도 그동안 여러 활동을 해오며 서사를 쌓아왔지만, 조국혁신당의 서사가 이번 선거에서 굉장한 호소력을 가졌던 거 같다. 우리가 처음에 ‘동물들의 목소리나 비인간 생물들의 목소리도 대변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꺼냈을 때 다 코웃음을 치고 막 다 무시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족들이 많고 그분들을 유권자로 인식하는 지금의 시기가 왔잖아요. 그리고 채식이라든지 여러 의제로 다뤄지지 않던 것들을 저희가 10년동안 얘기를 해왔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고. 바뀌어가는 걸 보며 미래는 진짜 녹색의 편이 맞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다른 유권자들은 이걸 모르는 것 같다. 우리도 뭔가 진짜 용혜인만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대중들이 쉽게 감성적으로든, 직관적으로든 알 수 있게 해야 하는 공간을 창출을 해야 되는데 이제 기회가 없으니까. 대중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전략들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 저희는 지역에서 만나는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들이 우리 당 자체이니까 지역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도 너무 중요한 지점인 것 같고요. 어쨌든 그동안 저희가 되게 치열하게 해왔던 그런 것들이 어렵지 않은 언어로 잘 전달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여자F

저는 사람들이 기후위기 문제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이걸 해결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가능할 거냐고 할 때 그 지점을 짚어줘야하는 거 같아요. 방금 사회주의를 주장해야한다고 이야기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회주의 세상을 만들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안에서의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너희가 주장하는 것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안 돼- 라는 자포자기를 우리 스스로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 가까운 사람이나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지점과 논리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인식될 만한, 가용될 만한 활동들을 보여주면서 저렇게 하면 기후변화,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단초들을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인식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아니면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5% 이상을 못 벗어나지 않을까, 소수의 한계로밖에 못 벗어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여자B

현재의 정치지형, 상황 자체가 소수 정당이 살아남기 힘든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고 그 틀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이 안에서 아무리 룰을 공정하게 바꿔도 의석을 확보하거나 득표율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신자유주의가 경제 부분만 이제 신자유주의화 한 게 아니고 사실 정치 부분도 되게 사유화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투표를 할 때 예전엔 이념적 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고 소비자 주체성, 투자자 주체성을 가지고 있고 투표가 하나의 투자 행위가 됐으니까 그게 이제 수익으로, 또는 이익으로 돌아오는 정당에 투표를 하게끔 이제 짜여져 있는 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국혁신당도 서사에 대한 감동보다는 어떤 스타트업의 참신함이 아니었을까. 실제로 홍보도 그렇게 했고요. 마케팅이 예전과는 다르게 좀 세련되게 다가갈 수 있는.(이제 지지하지 않는 정당의 당원들이 볼 때는 지지자들이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 기후위기에 대해 어느 정당, 국회, 민주당 모두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예전에 가졌던 녹색당의 분명한 상징성도 지금 더 이상 예전만큼 선명하지 않고 흐릿해져버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한 차별성 이런 것들을 좀 그으면서 입지를 확보해 나가지 않으면 사실 소수 정당 위치는 벗어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0년 전에 진보정당이 출현할 때 ‘부자에게 세금을 민중에게 복지를’이 구호를 내세웠잖아요. 근데 지금 양당은 둘 다 부자 정당이잖아요. 부자의, 부자에 의한, 부자를 위한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대로 못 살겠다, 이런 세상은 더는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을 충분히 조직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진보정당의 활동 속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도록 만들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반성을 했으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언제부턴가 녹색당이 되게 꿈을 작게 갖기 시작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되게 현실 가능한 대안 안으로 축소시키고 그릇이 점점 작아진다는 느낌.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깨뜨리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안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당과 당의 차이도 크지만 이번에 이제 봤듯이 당원들 간에서도 되게 많은 이제 차이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시대도 변화해가고 하는데 당원들의 교육과 학습, 또 우리들끼리의 토론 이런 것들이 좀 채워지지 않으면 지역에서 뿌리 내리지 못할 것 같아요. 강원녹색당부터라도 그런 당원 모임, 학습 모임, 공부 모임, 의제 모임 등등의 활동들을 좀 정례화 또는 계획 속에서 해나갔으면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주의 공부도 하고요. 체제 전환에 대한 얘기도 하고.

참여자H

저는 일단 이번 선거에 대해서 너무 깊은 반성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정치라는 게 큰 두 당의 싸움이고, 윤석열 정권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이번 선거도 윤석열 정권을 반대하려는 세력들이 힘을 모아주다 보니까 제3당, 그 이외의 당들에게 투표를 하지 못하는 그런 이런 악순환의 구조 정치잖아요. 저도 열심히 선거 활동을 하고 투표를 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죠. 이렇게 답답한 구조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아무리 우리가 기후 정치가 어떻고 해도 결국에는 더 싫어하는 사람이 더 활보를 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선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게 이런 상황이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충분히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를 많이 나눴고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많은 활동도 해야 하지만 저는 항상 국민의 힘이랑 민주당을 깰 수 있는 좀 더 신선하고 새로운 어떤 방법을 만들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는데 사실 답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조국혁신당도 어쨌든 윤석열 퇴진을 외쳤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득표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냥 저희는 저희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모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여자A

이번 선거에서는 정세가 어떤지 따라가질 못했어요. 이번 선거에 임했던 나의 모습이 일반 시민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서사에 대한 설명을 더 해야할 거 같은데 ‘저희는 3년을 못 기다립니다.’ 이걸 메인 슬로건으로 조국혁신당이 얘기를 했고 그걸 이뤄낼 만한 사람은 자기밖에 없고 이제 내 모든 걸 던져서 지금 나갑니다- 라는 메시지가 되게 선명했었고 그런 서사가 쌓여졌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한때 후보로 나섰었고 같이 노동당이나 다른 진보 정당들이랑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우리가 정책적으로 실력을 갖고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차별점을 가지고 실력을 키워야 하는 건 맞는데 우리끼리만 통할 언어로 자꾸만 얘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용혜인을 예로 들자면 어쨌든 이런저런 어떤 자기 정체성이 있는데 그걸 대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로 잘 변환해서 되게 명쾌하게 호소할 줄 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런 걸 해낼 수 있는 후보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계속 진보정당의 계보를 잇는 중요한 정당사 안에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고 또, 기후 정치를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는 당은 우리밖에 없으니까 한국 정치 안에서의 역할이나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크다는 건 알지만, 대중들이랑 소통할 줄 아는 감각이 필요하지 않나. 예전에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녹색당이 갑자기 바람처럼 나타났던 건 왜인지 저도 계속

생각을 해보거든요. 무언가가 대중들한테 어떤 호소를 가졌고 그때 당시에 어떻게든 포지셔닝을 했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계속 말하고 선언하는 거 말고 우리가 대중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정말 어렵겠지만 놓치지 말아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참여자C

급진적인 주장을 하면서 다가가는 모습을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부터도 민주노동당 이후에 중간에 다른 진보정당들에게 별로 관심을 갖지 않기도 하고 개인적인 경험도 없고 해서 다른 정당과의 차이를 잘 모르겠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정말 노동당과 녹색당의 차이가 무엇인지, 녹색당과 정의당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걸 아무리 설명을 한들 이해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싶어 하는데 이 진보 정당들끼리도 서로 합쳐지지 않는 현실에서 시민들에게 ‘녹색당이 더 낫다.’,

‘녹색당을 지지해야 한다.’라고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첫 번째, 진보 정당들의 역사 약간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다른 정당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궁금함이 있습니다.

참여자F

우리가 왜 싸울까, 왜 이렇게 진보는 분열을 할까. 너무 똑똑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괜히 차별화하려고. 물론 좋긴 한데 대중들이 움직이는 방향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차이를 명쾌하게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문가들밖에 없는 것 같고 우리만의 언어로 차이를 구별하려고 하는 순간, 이거는 자기들만의 정치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게 가능하려면은 똑똑한 누군가가 지시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방식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분명 우측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변화의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마땅히 표출할 수 있는 대상이 없으면 그냥 투표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냥 찍던 대로 찍는데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보이면 거기로 올인이 되는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도 어떤 두 양당 체제에 대한 불만이 하나의 대상화되어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 대상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녹색당이 그런 대상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선명하게 자본주의를 까부수려고 하고, 이런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참여자B

저도 생활 감각이 정말 결여되었다라고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민중이 가진 자생적 급진성 있잖아요. '이 체제는 정말 안 된다, 더 이상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제 직관적으로 깨닫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정치운동과 사회운동의 언어로 바꿔내고 같이 할 수 있는 실천으로 만들어낼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여자G

이번 선거에서 우리 녹색당하고 정의당하고 선택한 길은 다음 선거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진보당처럼 이번에 비례 위성정당 출신으로 나오면은 다음 선거에서는 아마 이제 발목 잡힐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해요. 저희가 이제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봐야겠죠. 위성정당이 얼마나 위헌적인지에 대해서요.

참여자D

전 구체적인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진보 정당들이 다시 혁명을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진보 정치에서 혁명이라는 단어가 안 들려요. 시민들이 진보 정당들한테 원하는 게 뭘까-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해법이 혁명 아닌가 싶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진보 정당들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영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녹색당 강령에 '떡갈나무 혁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물론 문학적 표현에 가깝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혁명은 옛날처럼 무작정 치고 받는 게 아닐테니 좀 구체적인 방안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선거운동 방식 자체가 완전히 좀 새롭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어떤 선거운동 방식. 국민들은 제 생각에는 진보 정당한테 기대하는 선거 운동이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진보정당이나 기성정당이나 선거운동을 저런 식으로 다 똑같이 하면서 도대체 뭘 바꾼다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저는 녹색당의 선거운동 방식은 달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문화예술 분야인데 이제 녹색 예술가들의 모임이 아직 활동은 안 하고 있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선거법상에서도 이렇게 할 거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사각지대예요. 되게 신나고 정말 새로운 방식으로 정당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희 운영위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되게 재미있어요.

참여자I

제가 드릴 말씀은 그냥 엉덩이 힘으로 버티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그대로 지치지 말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하여튼 버텨나가면은 우리는 분명히 그날을 맞이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